

작년 김장철이었다. 마침 우루과이라운드로 전국이 시끄러웠다. 우리 프로에서도 농촌 여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다. 아니, 이 기회에 그 동안 도시여성들만을 주로 등장시켰던 한계에서 벗어나 농촌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드러내 보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방송사 내부에서 '지금 모든 시사프로가 우루과이라운드를 다루어 왔는데 여성 프로까지 그걸 해야겠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왔다. (여성프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항상 이런 우려성을 띠고 있는 것이 한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수다'식 구성은 농촌여성과 도시여성이 나와서, 만들어 내는 입장과 사먹는 입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 보고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들어 본다는, 잘만 되면 아주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무마시켰다.

그날의 중심사례자는 멀리 경북의 한 시골에서 올라온

40대의 농부(農婦)였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 한글도 뒤늦게 깨쳤다는 그녀는 까맣게 탄 얼굴에 산푸라찌로 이를 해 박은 전형적인 농촌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 프로에 출연요청을 받고 생방송 시간에 대오느라 하루 전날 대전에 올라와서 자고 당일인

죽겠어에."

청심환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약효를 발휘해서 그 정도라도 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긴장해서 목소리도 잦아들고 대답도 단답식이었다. 그런 중에도 "요즘 농촌이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니는 집에서 살림 살고 농사일 두 가지를 하니 남편에 비해 억울하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변이었다.

"어데에? 애들 아부진들 농사짓기 싫어 나간기 아니지요. 돈을 못 벌어오면 농사도 못 저예. 비료값, 종자값은 다 누가 줄니까? 새벽에 한 술

여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어서 도시 주부 한 명이 나와 우리 농산물과 쌀 수입농산물 사이에서 겪는 소비자로서의 갈등을 고백했다. 그런데 이야기도중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나는 객석에 내려가 있던 앞서 농부

않아예!"라고 답을 하더니, 대주었던 마이크를 도로 가져가려 하는 순간 마이크를 잡아채 버렸다.

"내가 아래에 부라자를 하나 사러 시내에 갔었습니다. 점방아가씨가 일제 브라자를 내놓습디더. 그래서 내가 그랬어예. '나는 외제 부라자 안 찬다. 우리 것 내 나라' 우리 친척에 부라자 공장 하는 사람 없습디더. 그래도 내는 그랬어예. 도시 사는 사람들 농촌에 친척 없습니까? 참 너무합니다."

분명, 청심환이 뒤늦게 약효를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한 그 자체였다. 농촌문제 전문가나 경제학자가 나와서 장시간 토론했던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게 가슴 찡하게 농촌의 심정을 전달한 사람이 있을까.

그날 마이크를 뺏겨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긴 했지만 '여편네 수다' 식의 표현이 가진 엄청난 힘과 감동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에 비기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農婦)에게 마이크를 가져갔다. 도시여성인 스스로도 그말에 약간 동조하는 터라 어떤 해명이 나올까 궁금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우리, 농약 그렇게 많이 안 칩니다. 그걸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사는데 죽을 만큼 많이 치지

수다의 사회학④

“나는 외제 부라자 안찬다”

오숙희/KBS-TV '집중토론 - 오늘의 여성' 진행자

아침에 영등포역에 내려 방송국으로 일찌감치 온 정성꾼이기도 했다.

"가슴이 뛰어서 짜서 평생에 침으로 내사 청심환을 안 사먹었능고.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가면 하고 싶은 말 좀 속 시원히 다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못할 것 같아 걱정돼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내 질문에는 우렁찬 목소리로 "정부가 잘못 하는 기라예. 우리 농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는 구호성 발언을 해서 순간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내 마음을 뜨끔하게 한 것은 "남편은 도시로 날품팔이를 나가는데 아주머

뜨고 나가 깜깜한 밤에 들어오는 고상을 한다 아입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남편의 고생을 먼저 해아려 주고 가슴 아파하는 그 수더분하고 넉넉한 마음씀 앞에서 나는 '얕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게' 따지고 사는, 그것도 공부 좀 했답시고 손해 안 보려 드는 각쟁이 도시